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배포) 2018. 12. 12(수)

12월 12일(수) 11:30 (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국방부	
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과장 이용석, 중령 박용채 (044-200-2123, 212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외협력과	과장 최청 (02-811-6580)

6·25 전사자 유해 365위 조국의 품으로

- 이낙연 국무총리 참석,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거행 -
- 3월부터 8개월 동안 연인원 10만명 투입, 85개 전투지역에서 발굴 -

- 정부는 12월 12일(수)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365위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 이날 봉안식은 이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하여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 (참석)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안수현 서울현충원장, 박희모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 등
- 올해 봉안되는 365위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전후방 각지에서 발굴된 288위를 비롯해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견된 유해 12위와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봉영한 64위, 지난 7월 한미 상호 봉환행사를 통해 모신 1위입니다.
 - (국내 각지 288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과 해병대 33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양구, 인제, 철원, 파주, 철곡 등 6·25전쟁 격전지 85개 지역에서 수습한 유해입니다.

- (화살머리고지 일대 12위*) 남북이 '9·19군사합의'를 통해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에 수습한 유해입니다.

* 유해는 총 13구로, 이 중 1구는 중국군 유해로 추정돼 봉송식에서 제외(중국군 유해 여부 확정 절차 진행 중)

- (국군의 날 봉영 64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간 공동감식결과 국군전사자로 판명돼 68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 (한·미 상호 봉환행사 1위) 미국 제1기병사단 소속(카투사) 고(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로 지난 2001년 북한 평안남도 개천 지역에서 북·미 공동발굴시 미군 유해와 함께 발굴돼, 미국 하와이를 경유해 지난 7월 13일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입니다.

- 이날,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존실)에 모실 예정입니다.

-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 확인된 365위를 포함해 현재까지 발굴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0,238위입니다.

*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의 의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시작

- 한편, 올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강원도 철원의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고 박재권 이등중사*를 포함해 네분이며, 지금까지 총 131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 '18년 신원 확인된 호국용사 현황

구 분	소 속	신원 확인	발굴 지역	발굴 연도
128번째	미 1기병사단	고(故) 일병 윤경혁	평안남도 개천	'01년
129번째	국군 1사단	고(故) 이등중사 김정권	경기도 파주	'17. 10월
130번째	국군 7사단	고(故) 일병 박태홍	경북 포항시	'09. 4월
131번째	국군 2사단	고(故) 이등중사 박재권	강원도 철원	'18. 10월

- 현재까지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는 12만 3천여 명이며, 수습한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1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4천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정부는 6·25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부터 유해발굴관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가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가족 DNA를 조기에 다수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 2019년에는 남북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 추진을 통해 DMZ 내에서 다수의 전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68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6.25전사자를 기다려 온 유가족의 염원을 바탕으로 마지막 6.25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합동봉안식 관련 자료

□ '18년 발굴 현황

('18. 12. 12 기준)

구 분	총 계	아 군			적 군(추정)		
		소 계	국 군	UN군	소 계	북 한	중 국
'18년	379	365	365	0	14	2	12
누계	11,206	9,891	9,873	18	1,315	723	592

* 국군전사자 유해 수치는 DNA검사 중인 유해가 있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전사자 신원확인 현황 : 131명

('18. 12. 12 기준)

구분	계	'00 ~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인원	131	22	9	13	10	6	8	11	5	17	8	9	9	4

* 발굴된 국군전사자(9,957여 위) 대비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3%

□ 합동봉안식 : 연간 발굴된 유해중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의식행사

- 일시 / 장소 : '18. 12. 12.(수), 10:30 ~ 11:20 / 국립서울현충원(현충관)
- 임석 / 주관 : 국무총리 / 서울현충원장
- 식순

- 개식사 · 국기에 대한 경례 · 호국용사 영령께 대한 경례
 - 유해발굴 경과보고 · 종교의식 · 헌화 및 분향 · 조총 및 묵념
 - 영현봉송 · 영현께 대한 경례 · 폐식사